活力있고 快適한 漁港漁村 建設

會訓 創意 奉仕 誠實

漁港消息

발행겸 편집인 孫井植 | 特殊法人 韓國漁港協會
인쇄인 金在克 |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705-9
ISSN 1227-7053 | TEL.568-6651~2 568-5595~6
등록일:1988년2월19 | FAX.568-6653

〔月刊〕 第114號 THE FISHING PORT NEWS 1997年 6月 25日(水曜日) 〔1〕

98년 어항건설 예산

2천88억8천1백만원 요구

해양수산부 어촌 정주권 핵심기반으로 적극 조성방침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어항건설 예산으로 일반회계 1천20억6천5백만원, 농특회계 1천68억1천6백만원 등 올해보다 34.0% 증액된 2천88억8천1백만원을 예산당국에 요구했다.

이중 제1·3종어항 순수 시설비는 올해보다 22.7% 늘어난 1천6백35억4천만원이며, 제2종어항은 농어촌특별회계의 당초 계획에 의해 올해보다 55.8% 늘어난 3백억원을 계상했으며 일반회계에서는 보수보강 예산 80억원을 요구했다.

해양수산부는 어촌정주권의 핵심기반이 되는 어항을 사회간접자본시설로서 어획물의 양륙, 어선의 안전정박, 선수품보급 등을 위한 기본시설 우선투자에서, 어항중심으로 어장 어촌 해양관광을 연계한 종합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추진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와함께 어항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편의 증대를 위해 안전진단, 정비조사 등을 실시하여 유지보강사업에도 중점을 두기로 했다.

98년도 어항건설예산요구 현황

구 분	97예산(A)	98요구(B)	증감 (B-A)	증감 %	비고
합 계	155,838	208,881	53,043	34.0	
일 반 회 계	54,404	102,065	47,661	87.6	
〈제1종어항〉	54,374	94,008	39,634	72.9	
· 시설비	53,134	88,928	35,794	67.7	
-계속투자	26,400	46,000	19,600	74.2	
-보수보강	26,734	42,928	16,194	60.6	
· 부대경비	1,240	5,080	3,840	309.7	
-관서운영비	-	200	200	-	
-연구개발비	800	150	△650	△81.3	
-기본조사설계비	-	4,170	4,170	-	
-감리비	105	-	△105	-	
-부대시설비	335	560	225	67.2	
〈제2종어항〉	-	8,000	8,000	-	
-보수보강	-	8,000	8,000	-	
〈경상경비〉	30	57	27	90.0	
-관서운영비	22	27	5	22.7	
-여비	8	30	22	275.0	
농 특 회 계	101,434	106,816	5,382	5.3	
〈제1·3종어항〉	82,184	76,816	△5,368	△6.5	
· 시설비	80,156	74,612	△5,544	△6.9	
· 부대경비	2,028	2,204	176	8.7	
-감리비	1,739	1,935	196	11.3	
-시설부대비	289	269	△20	△6.9	
〈제2종어항〉	19,250	30,000	10,750	55.8	
제1 3종어항 시설비 합계	133,290	163,540	30,250	22.7	

원산지 표시 제도 수입검사제 강화

해양수산부는 오는 7월1일 수산물수입 전면개방에 따라 올해부터 원산지표시제도와 수입품검사제도를 강화하고 조정관세부과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신상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6월16일 이같은 내용의 수산물수입 개방대책을 발표했다.

신상우 장관은 총 3백90개 수산물 가운데 이미 수입자유화된 3백59개 품목 외에 나머지 31개 품목이 올 7월1일부터 일정관세만 물면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게 된다면서, 특히 이들 추가 품목은 갈치, 조기 등 국내 소비자에게 인기가 높은 어종으로 국내 수산업계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수입이 급증해 국내 어업인 피해가 예상되는 갈치, 꽁치, 조기, 새우젓, 조미오징어 등에 대해선 7월1일부터 최고 2백%의 조정관세를 부과하도록 재정경제원에 요청했다.

선진어촌 건설위해 어항 다목적으로 시설

전국 연안 5개권역 특성별 개발

해양수산부는 21세기 일류 해양국가 건설을 위해 오는 2011년까지 전국 연안을 5개 권역으로 나눠 U자형으로 특성있게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또 첨단해양산업발전을 위해 내년부터 수도권 임해도시나 남해안 청정해역에 첨단해양산업도시를 건설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해양수산부는 오는 2011년까지의 중장기 해양수산 관련정책을 담은 이같은 내용의 21세기 해양수산비전을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이 비전에서 오는 2011년까지 전국연안을 서해중부권(해양과학산업전진기지), 서해남부권(대 중국교역지원기지), 남해서부권(수산해양관광기지), 남해중동부권(동북아 물류중심기지), 동해권(내륙 해양연계 휴양기지) 등 5대 권역으로 나눠 특성에 맞게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또 첨단해양산업발전을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11년까지 수도권임해도시 또는 남해안청정해역에 인공섬을 건설, 이곳을 해양산업 교육연구시설, 해양과학관, 해양레저시설 등을 갖춘 새로운 개념의 해양산업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해양수산부는 오는 2011년까지 부산항과 광양항에 연간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천4백73만개를 처리할 수 있는 61개 선석의 대형컨테이너부두를 확보, 동북아물류중심기지로 육성하는 한편, 독도의 영유권을 확고히 하기위해 내년부터 오는 2011년까지 독도인근 해역에 종합해양과학기지 및 어업인 숙소 등을 건립, 어업전진기지로 활용키로 했다.

이밖에 풍요로운 선진어촌 건설을 위해 어항을 다목적으로 개발하고 어촌계를 2백25개 권역으로 묶어 종합적으로 개발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오는 2000년까지 어촌관광개발계획을 수립, 해양문화 및 휴양공간조성을 위한 기틀을 만들기로 했다.

어항예산 과감히 늘려야 한다

어항 다기능화 인식 전환
투자 뒤따라야 소기 성과
日, 수산예산의 무려 64%반영

해양수산부는 1998년 어항건설예산을 올해보다 34% 증액된 약 2천89억원을 예산당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론부터 먼저 말하자면 이렇게 요구된 어항건설예산이 실제로 전액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다.

그 가장 큰 이유로는 수산업의 여건과 환경 변화를 들 수 있다.

잘 알고 있다시피 오는 7월1일부터 수산물 수입이 전면 개방된다. 물론 3백90개 수산물 가운데 이미 3백59개 품목의 수입이 자유화된 바 있으므로 이번 수산물 수입 개방은 갈치 조기 등 국내에서 많이 소비되는 나머지 31개 품목의 개방에 불과한 것이라고 과소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품목이 중요한 게 아니다. 문제는 수산업 종사자들이 심리적 위축감에 있다. 어떤 의미로 우리나라 수산업이 존폐 위기의 급박한 상황으로 몰렸다고 간주해도 좋을 것같은 분위기이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 수산업 환경이 이렇게 문을 활짝 열고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에는 턱없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수산업 환경속에서 물밀 듯 밀어닥칠 값싼 수산물은 적잖은 어업인들로 하여금 수산업을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특히 수산업의 기반이자 핵심인 어항시설의 열악성이 이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70년대에 어항기본시설을 완성하고 현재는 제9차 어항정비장기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며, 올해 어항건설예산은 2천3백83억엔으로 수산예산의 63.5%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는 20%를 겨우 넘고 있음이 이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오늘날 일본이 세계 제1의 수산대국으로 성장하게 된 그 이면에는 이같은 총력적인 어항투자가 원동력이 됐음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어항건설은 우선 수산업의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아울러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개발이라는 부수적인 효과를 창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잖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어항」하면 어선이나 정박하는 장소 정도로 인식하고 있으니 한심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번 반복하는 이야기이지만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진 우리나라가 그 바다를 포기하고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에

이른다면 어항의 중요성을 재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다행히 이번에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어항건설예산의 집행방침을 보면 이를 상당부분 수용하고 있어 천만다행이다.

즉, 그동안 사회간접자본시설로서 어획물의 양륙, 어선의 안전정박, 선수품 보급 등 기본시설 우선 투자에서 한걸 더 나아가 어항을 중심으로 한 종합개발 차원으로, 다시 말해 어항 어장 어촌 해양관광을 연계한 실소득 위주로 어항건설 투자의 방향을 설정한 것이다.

이는 어항의 다기능화를 통하여 미흡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다양한 어업인 소득증대를 통해 수산업 발전의 새로운 활로를 찾자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 시의적절한 방향전환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문제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 것처럼 예산 당국이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백약이 무효일 수밖에 없다. 해마다 노래처럼 어항건설예산의 확대를 요구해온 배경에는 이런 나름대로 2천년대 우리나라 수산업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충정을 이번 기회에 예산 당국은 꼭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한가지 노파심에서 덧붙이자면 최근 해양수산부의 조직 개편에서 볼 수 있듯이 수산분야가 해양분야에 뒤섞여, 갈수록 전문성과 특수성이 사라져 가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어항과 항만은 그 개념에서부터 엄연한 차별화가 필요하며 이는 일본 등 수산업 선진국에서 이미 모범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다.

해양수산부 자신이 이에 대한 명백한 정의를 내려 주어야만이 어업인이나 어항 관련자들이 희망과 용기를 갖고 주어진 일에 더욱 매진할 수 있을 것임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동정

엘리자베스2세 여왕 탄생 축하행사 참석

▲신상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6월8일 부산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개최된 강동석씨 단독요트 세계일주환영행사에 참석, 14일에는 인천항에 정박 중인 영국 왕실요트 브리테니아호에서 개최된 엘리자베스2세 영국여왕 탄생축하를 위한 행사에 참석.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은 6월4일 황명수 신한국당 중앙위 의장을 방문하고 농림해양수산 정책에 관한 의견을 교환, 5일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주최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 6일에는 현충일을 맞아 장교동기회 주관으로 동작동 국립묘지를 참배, 11일에는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5차농정개혁추진회의에 참석, 13일에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주관한 국가정책 세미나에 참석, 19일에는 신한국당 농어촌발전기획위원회에서 주관한 농촌현장 방문에 참여, 농어촌구조개선투자의 현황과 향후 농어촌 사회개발정책수립을 위한 자료수집을 위해 경기도 고양군, 연천군, 포천군, 강원도 철원군 등지의 농촌을 방문하고 현지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현황을 파악, 25일에는 부경대학교에서 개최된 수산물 수입개방대책 심포지움에 참석.

▲박종식 수협중앙회장은 6월11일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5차농정개혁추진회의에 참석, 16일부터 5일간은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한 일 민간어업협의회에 참석.

▲안성봉 한국어선협회장은 6월9일부터 13일까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97년 기준미달선 관련 국제포럼과 선박박람회에 참석.

▲최상옥 남화토건주식회사 회장은 6월9일 21세기발전협의회에 참석, 11일에는 전국문화원연합회 이사회 및 시도 지회장 연석회의에 참석, 13일에는 전남대학교 45주년 기념 법률행정연구소 세미나에 참석, 이어 범죄예방 광주지역협의회 임원회의에 참석, 14일에는 장성황룡동학농민군 승전기념탑 제막식에 참석, 17일에는 향토문화원 심포지움에 참석, 18일에는 21세기 경영인클럽 조찬회에 참석, 19일에는 대한적십자사 제2차 상임위원회에 참석.

▲고제철 금광기업주식회사 회장은 6월5일 광주매일신문 창사 6주년 기념식을 거행, 7일에는 청소년선도 서화백일장 시상식 및 장학금전달식에 참석, 18일에는 청소년을 위한 희망의 결연대회에 참석, 20일에는 광주대학교 법인창설 27주년 기념식에 참석.

▲조남욱 삼부토건주식회사 회장은 6월5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연구원 오찬세미나에 참석, 10일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임원간담회에 참석, 12일에는 전경련 이사회에 참석, 18일에는 21세기 경영인클럽 조찬세미나에 참석.

▲마형렬 남양건설주식회사 회장은 6월4일 신한국당에서 개최된 건설업계와의 간담회에 참석, 5일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간담회에 참석, 16일에는 97년도 전남건설협회 제1회 이사회에서 회장에 재 선임, 24일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단 간담회에 참석.

▲황금추 동광건설주식회사 사장은 6월12일 전남여고에서 전국펜싱대회를 개최.

▲장정언 정한종합건설주식회사 회장은 6월9일 2002년 월드컵 제주도유치위원회에 참석, 10일에는 백범 김구선생 기념사업 이사회에 참석, 18일에는 한국정책연구원 이사회에 참석, 24일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단 간담회에 참석.

▲정윤삼 대지종합건설주식회사 회장은 6월18일 진도공사현장을 방문.

▲임제호 삼오종합건설주식회사 사장은 6월13일 제주세계섬문화 축제 조직위원회에 참석.

▲송재성 주식회사성호종합건설 회장은 6월11일 여수공사현장을 방문.

김영삼 대통령은 5월31일 제2회 바다의날 기념식에서 해양수산의 발전을 위해 정부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신상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6월16일 해양수산부 회의실에서 강동석씨 단독요트 세계일주환영행사를 개최했다.

한국어항협회는 6월13일 제15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인사

▲해양수산부 승진인사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이사관 김상열 △국립해양조사원장 수로이사관 조세연

▲주식회사우주종합건설은 최근 오경화 부사장을 대표이사 사장으로 발령했다.

▲주식회사동일기술공사는 최근 황해근 대표이사 사장을 대표이사 회장으로, 조상하 부사장을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당선

▲육지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임명관

화촉

▲김재우씨(동화건설주식회사 사장)의 차녀 희정 양이 오는 7월5일(토) 오후 2시 청담동 탑웨딩예식장에서 화촉을 밝힌다.

확비납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개인

▲강영무씨(해양수산부 신항만기획관실)

▲황철민씨(해양수산부 어항개발과)

▲최재학씨(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조사시험과)

▲황찬우씨(전 수산청)

11개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분산

동서남해 어항사무소 관장 1·3종 어항업무

지난 5월24일 해양수산부 조직개편에 따라 종전의 동서 남해 어항사무소에서 관장하던 전국의 제1·3종 89개 어항관련 업무가 부산, 인천 등 11개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분산됐다.

각 지방해양수산청 별 관할 어항은 다음과 같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 대변, 다대포 △인천〃 : 어유정, 장봉, 덕적, 울도 △마산〃 : 광암, 외포, 능포, 지세포, 구조라, 다대다포, 삼덕, 맥전포, 물건, 미조, 매물도, 능양, 욕지, 신수 △울산〃 : 정자, 방어진 △여수〃 : 국동, 돌산, 내발, 풍남, 녹동, 안도, 낭도, 시산, 초도 △동해〃 : 대진, 거진, 아야진, 대포, 수산, 남애, 사천진, 안목, 금진, 덕산, 장호, 임원 △군산〃 : 격포, 어청도, 연도, 말도, 위도 △목포〃 : 계마, 전장포, 수품, 서망, 어란진, 마량, 안마, 원평, 서거차, 소흑산도, 보옥, 소안, 득암, 여서, 청산도, 사동 △포항〃 : 죽변, 오산, 사동, 구산, 대진, 축산, 강구, 구계, 대보, 양포, 감포, 읍천, 현포, 저동 △제주〃 : 도두, 김녕, 위미, 모슬포, 추자, 신양 △대산〃 : 모항, 안흥, 오천, 홍원, 외연도.

지방해양수산청별 어항분포

지방해양수산청	계	제1종어항		제3종어항	
합계	89	소계	58	소계	31
부산	2	대변, 다대포	2		
인천	4			어유정,장봉,덕적,울도	4
마산	14	광암,외포,능포,지세포,구조라 다대다포,삼덕,맥전포,물건,미조	10	매물도,능양,욕지,신수	4
울산	2	정자,방어진	2		
여수	9	국동,돌산,내발,풍남,녹동	5	안도,낭도,서산,초도	4
동해	12	대진,거진,아야진,대포,수산,남애 사천진,안목,금진,덕산,장호,임원	12		
군산	5	격포	1	어청도,연도,말도,위도	4
목포	16	계마,전장포,수품,서망,어란진 마량	6	안마,원평,서거차,소흑산도,사동 보옥,소안,득암,여서,청산도	10
포항	14	죽변,오산,사동,구산,대진,축산 강구,구계,대보,양포,감포,읍천	12	현포,저동	2
제주	6	도두,김녕,위미,모슬포	4	추자,신양	2
대산	5	모항,안흥,오천,홍원	4	외연도	1

책임 감리 대상 공사 소폭 줄어

책임감리를 받아야 하는 공사가 종전보다 소폭 줄어든다.

또 자본금과 인력부문에 대한 감리회사 등록기준은 50% 완화되며 사무실 보유기준은 폐지된다.

이와함께 설계 감리 보증제도가 신설, 계약금액범위내에서 보증케 했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책임감리대상 공사의 경우 준설을 제외한 50억원 이상 PQ 21개 공종 전체공사(교량은 1백m이상)와 고속도로 등에 대해 책임감리를 실시토록 했다.

이에따라 종전 5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책임감리를 받도록 했던 것과 비교할 때 길이 1백m이상 교량이 있는 도로공사와 단지조성 조경 등 일부 공종만이 책임감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감리회사 등록기준 중 자본금 및 인력기준을 현행보다 50% 완화하고 입법예고안에서 종전대로 존치했던 사무실 기준을 폐지했다.

이와함께 당초 설계 감리 보증제도를 신설하면서 설계보증은 계약금액으로, 감리보증은 계약금액 이상으로 했던 것을 수정하여 감리보증도 계약금액 범위내로 했으며 설계보증 수수료를 업체가 부담토록 했다.

항만사업 단계별로 민자유치

기부채납된 부가세 면제

정부는 항만공사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의 경쟁을 유도키 위해 신항만 등 대규모공사의 경우 사업을 단계별로 분할해 민자유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항만공사 완공후 시설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할 때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항만공사의 민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 신항만 등 대규모항만공사를 민자유치로 추진할 경우 사업을 단계별로 구분, 민간기업의 경쟁을 유도해 사업효율성을 높히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신항만공사의 경우 규모가 워낙 방대해 사업 전체를 한꺼번에 민자로 추진할 경우 기업들이 위험을 분산키 위해 단일 컨소시엄을 이뤄 사업에 참여하는 등 기업 간의 경쟁조성이 제대로 안됨에 따라 부두위치나 특성을 감안, 사업을 단계별로 분할 추진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또 현재 항만공사 완공후 시설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할 때 공사비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토록하고 있으나 업체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를 면제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강구키로 했다.

이와함께 민간사업자의 적정수입성 보장방안을 마련키 위해 항만시설 사용료와 하역요금을 국제수준에 맞게 점차적으로 현실화해 나갈 방침이다.

내년 부산에 해양종합공원 조성

총공사비 5천5백억원 규모의 부산해양종합공원 민자유치사업이 오는 하반기중 고시돼 내년부터 본격 착수된다.

해양수산부는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준설토투기장 매립지 21만8천평중 13만9천평에 대형박물관과 여객선전용부두, 호텔, 마린돔 등이 들어서는 해양종합공원을 민자를 유치해 조성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부산해양종합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활용계획을 수립 중이며 용역이 완료되는 오는 10월쯤 사업자선정에 들어가 내년부터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어항시설 철부선 예인사업 면허대상서 제외

한국어항협회 해양수산부 유권해석 조회 확인

어항공사를 위해 예·부선을 결합하여 운항하는 경우에는 해상화물운송사업면허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한국어항협회가 최근 어항내에서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중기운반을 위하여 무동력 철부선을 동력선으로 예인하여 운항할 경우 해운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해상화물운송사업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해양수산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이같은 해석이 나왔다.

해양수산부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은 해상화물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해운법에 따라 면허 또는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사업은 해상 또는 해상과 연접한 내륙수로에서 선박으로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서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항만운송사업 외의 것을 말한 바, 항만운송사업법이 정한 항만내에서 부선에 의하여 운송하거나 총톤수 1백톤 미만의 선박에 의한 운송행위는 제외하고 있다며, 이같은 입법취지로 보아 어항내에서 예 부선의 결합에 의한 공사자재 및 중기운반은 현행 규정상 해상화물운송사업의 영역으로 보기 곤란한 것으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농어촌발전기획委구성 孫井植 회장, 위원으로 임명

신한국당은 최근 농어촌 지역개발을 사회개발 차원에서 추진키 위해 농어촌발전기획위원회를 구성, 6월23일 이해구 위원장을 비롯 11명의 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신한국당은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농어촌지역의 복지제고를 위한 정책개발을 위해 농어촌발전기획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1차 회의에서 농림부로부터 농어촌 발전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고, 위원회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신한국당 농어촌발전기획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 이해구 의원 ▲위원 : △원내 ; 이상배 의원, 차수명 의원, 박종우 의원, 서 한 샘의원, 이경재 의원, 황성균 의원 △원외 ; 박태권 위원장(서산 태안 지구당), 김광희 위원장(목포 신안을, 전 농림수산부 차관) △국책자문위원 ; 박종문 전 농림수산부장관, 박상우 원장(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앙위원 ; 손정식 위원장(농림해양수산분과위원회, 한국어항협회장)

1백억미만工事 支廳서 입찰

契約관련 書類 대폭 簡素化

조달청은 6월5일 1백억원 미만공사는 지청에서 입찰을 집행하고 1백억원 미만 내역입찰공사의 입찰 및 계약관련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시설공사 업무개선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지청에서 집행하던 공사규모를 종전 58억3천만원(전기 통신 전문건설공사 3억원)에서 1백억원(전기 통신 전문건설공사 20억원 미만)으로 확대, 6월1일 계약요청서 접수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또 1백억원 미만 내역입찰공사의 경우 적격심사서류인 시공경험(시공실적증명서), 경영상태, 신인도분야 서류제출을 생략하고 기술자배치계획 확약서, 공사관리계획 확약서만 내되 상세한 서류는 낙찰후에 내도록 했다.

이에따라 응찰업체에게는 건당 약 8백만원의 서류작성 비용이 절감되고 적격심사기간도 종전보다 2일 정도 빨라지게 됐다.

조달청은 신속한 낙찰자 선정을 위해 내역서는 공종별 누락 또는 변경된 공종 혹은 수량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1백분의5 이상인 경우 간이검토하고 세부비목의 정정된 부분의 금액이 입찰서 금액의 1백분의5 이상인 경우 검토를 생략하기로 했다.

한편 조달청은 PQ관련 서류도 간소화, 불공정행위 여부 확인서, 시공경험(시공실적증명서), 경영상태(재무상태관리보고서), 우수시공 업체증명서 건설과태료 등 신인도 관련서류 를 생략하기로 했다.

어항공사비 현실화 요청

漁港協 품질시험비 계상등 지적

한국어항협회는 최근 어항공사의 견실시공과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정 공사비를 보장해 줄 것을 관련 당국에 건의, 협조를 요청했다.

한국어항협회는 올해 어항시설 계속공사의 수의시담과정에서 조달청이 일방적으로 예정가격의 94% 미만으로 제한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공사비 부족으로 인한 견실시공의 어려움 등으로 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현행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가장 근사치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계약당국에 건의했다.

이같은 건의는 조달청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1조 및 회계예규 공사의수의계약운용요령 제3조제1항의 계약상대방이 제출한 견적금액이 당해 예정가격에 제1차공사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이내일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정가격의 94% 미만으로 제한하여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품질관리비의 경우도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에 의거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는 발주자가 품질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품질시험 비용을 공사비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품질시험 비용을 계상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관급자재 관리비도 설계비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시공을 맡은 시공업체가 이들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공사의 원활화와 적정 공사비 보장으로 견실시공을 할 수 있도록 관급자재 관리비 및 법에 보장된 품질관리비를 계상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금년도 漁村觀光 휴양단지 선정

해양수산부 전남 대흑산도 진리

해양수산부는 최근 97년 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지로 전남 신안군 흑산면(대흑산도) 진리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키로 확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흑산도 관광휴양단지는 약 1만1천평의 면적에 가족호텔, 수산물판매장, 토산음식점, 수족관, 체육시설 등 관광레저시설이 건설될 예정이며, 총 사업비 2백억원을 투자 98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으로 선정된 흑산도 지역은 도서 전체가 천혜의 관광지로서 금후 관광객을 위한 휴양시설 및 관광개발 등으로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도서지역 경제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해양수산부는 어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촌관광개발사업은 급증하는 도시민의 레저수요를 어촌지역으로 흡수하여 어업인의 어업외 소득증대 도모와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부실책임 기준 마련

빠르면 내년부터 설계와 감리 등 기술용역을 맡고 있는 엔지니어링 업체와 감리업체 등의 부실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올해부터 우수 건설업체 지정제도 실시

조달청은 올해부터 우수건설업체 지정제도를 시행한다.

조달청은 최근 건설업체의 견실시공을 유도하고 기술개발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금년부터 조달청이 관리하는 공사를 대상으로 우수건설업체 지정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이에따라 공사평가방법으로 시공평가와 업체능력평가 등 2단계로 나누어 실시 하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 시공평가는 품질관리, 공정관리, 하도급관리, 기술 개발, 안전 및 환경관리, 기타 등 7개분야 41개항, 업체능력평가는 하자발생률, 하도급거래, 기술개발투자비, 국산자재사용실적, 누계부실벌점, 품질보증체제인증, 공사실적, 공사의 특 소성 등 8개분야 24개항의 평가기준을 설정했다.

이와함께 소형공사도 평가대상에 포함시키고 대형공사 및 특수공사 등에 대해서는 대학 교수를 기술고문으로 위촉하여 평가하기로 했다.

한편 조달청은 우수건설업체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우수건업체를 포함한 모든 평가업 체의 평가결과 및 공사실적 수행 등을 3년간 추적 관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향후 공사에 인센티브를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 따르면 설계자와 감리자의 업무상 책임과 성격, 종류, 요건 등에 대한 구분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엔지니어의 책임에 관련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바다사랑, 고객사랑
수협35년

우리의 풍요로운 미래, 바다 -
그 바다와 함께 해온 수협 35년 -
어업인들에겐 든든한 삶의 동반자로
고객에겐 바다의 큰 혜택을 전하는
친근한 이웃이 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수협은 생활 가까이에서
바다의 푸른 꿈을 우리의 미래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수산물판매에서 은행업무까지 -

수협은 수산물 공판장, 백화점 등을 운영하여
소비자에게 산지 직송의 싱싱한 수산물을 공급함은 물론

그 수익금을 어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639개 지점망을 갖춘 수협은행은
24시간 친절하고 빠른 서비스와
높은 이자를 드리는 바다같은 은행입니다.

바다사랑 고객사랑
수협

건·강·하·게·삽·시·다

관 절 염

환자의 30%가 30~40대
도시화로 발병연령 낮아져

관절염은 쿠션역할을 하는 연골에 염증이 생긴 퇴행성(변형성) 관절염, 관절에서 윤활유 구실을 하는 활액을 만들어 내는 관절낭에 병이 생긴 류머티스성 관절염, 통풍성 관절염 등 세가지로 나누어 진다.

변형성 관절염은 50세 이상 장년층에서 주로 발병하며, 통풍성 관절염은 30-40대의 활동적인 남성들을 괴롭히는 병으로 성인 남자 1백명중 2-4명 꼴로 발생하고 있다.

류머티스 관절염은 20-40대 사이에 많이 발병하며, 특히 여자가 남자보다 3-4배나 많이 걸린다.

통풍의 원인이 되는 고요산 혈증을 유발하는 위험인자로는 유전적인 체질과 고단백 및 고지방 섭취, 알코올 과음, 비만 등 환경적인 요인이 꼽히고 있다. 류머티스성 관절염은 과로, 영양부족, 세균감염, 외상 등이 발병의 계기가 되고있다.

관절염이 있는 사람은 자고 일어나면 근육이 뻣뻣한 경직감을 보이는데 퇴행성은 일으나 움직이다보면 대개 30분 이내에 풀어지지만 류머티스성은 1시간 이상 지속된다.

퇴행성은 활동을 할수록 통증이 심해져 저녁이나 밤에 심하고 류머티스성은 초기엔 활동할수록 통증이 완화되며 아침에 심한 편이다.

퇴행성 관절염과 류머티스성 관절염은 발병원인에서도 큰 차이가 있지만 발생하는 부위도 약간 다르다. 퇴행성은 체중을 지탱하는 관절, 즉 무릎, 엉덩이 경요추부위에 많이 생기며 특히 우리나라의 좌식생활 탓으로 무릎관절이 많이 나타난다. 이에 비해 류마티스성은 말초의 작은 관절, 즉 손목이나 손가락마디, 발목, 팔꿈치관절에 잘 나타나며 통증도 좌우 대칭형으로 나타난다.

퇴행성 관절염은 체중조절, 하지관절에 충격을 줄여주는 신발착용, 체중을 분산시키는 지팡이 사용, 소염진통제 복용 등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 심한 경우에는 관절 활막절제술, 관절성형술 및 인공관절대치술 등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된다.

관절연골은 일단 손상을 받으면 회복이 되지 않으므로 엄밀한 의미에서는 치유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증상을 경감시키고 관절기능을 향상시켜 이 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최근에는 관절경을 사용하여 관절절개를 하지않고도 관절세척 및 활막 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퇴행성관절염 다음으로 흔한 류머티스성 관절염은 여러 관절에서 양측성으로 발생하는데 주로 손과 발의 작은 관절에 잘 침범한다. 정확한 원인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관절내의 활막이 비후되고 돌기를 형성하며 진행되면 관절연골손상이 초래 된다.

물리적 치료 및 적절한 약물요법으로 증상을 조절할 수 있으나 이러한 내과적 처치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활막절제술을 시행한다. 이 시술은 관절연골 파괴가 심하지 않는 경우에 효과가 있다. 관절경을 사용하여 관절을 절개하지 않고 활막절 제술을 시행하면 종전의 방법보다 합병증이 적고 회복기간이 단축된다.

어·항·교·실

漁港工事施工管理의 첫걸음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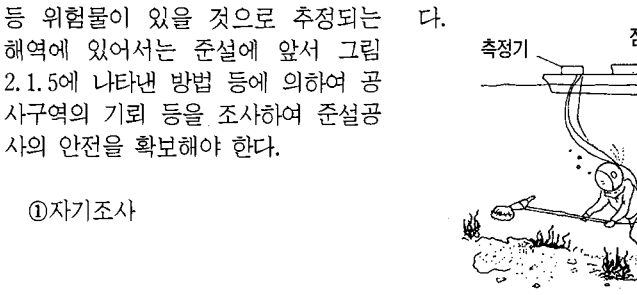
第2章 浚渫工

(5)장애물 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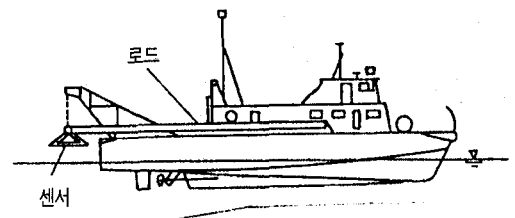
공사착공후에 장애물이 발견되고 그 처리때문에 공기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장애물 탐사를 한다.

특히 해저에 매몰되어 있는 기뢰나 폭탄이 폭발하여 준설작업중의 준설선 등이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뢰 등 위험물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해역에 있어서는 준설에 앞서 그림 2.1.5에 나타낸 방법 등에 의하여 공사구역의 기뢰 등을 조사하여 준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①자기조사



(a)예항방식에 의한 자기 탐사



(b)자항방식에 의한 자기 탐사

그림 2.1.5 자기탐사방법

②잠수탐사

자기탐사에 의하여 일정치 이상의 자기반응을 나타내는 이상점이 있을 경우는 그 위치를 구하여 그림 2.1.6에 나타낸 바와 같은 잠수탐사를 한다.

그 결과, 만약 폭발물을 발견한 경우는 조속히 해양경찰서 등에 보고한다. 이상물을 제거한 뒤, 재차 자기탐사를 하여 폭발물이 잔존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후, 준설공사에 착수한다.

그림 2.1.6 간이탐사계를 사용한 잠수탐사

③경층탐사

자기탐사의 유효탐사 두께는 4m정도이기 때문에 흙두께가 4m이상 있을 경우에 대하여는 층별로 자기탐사와 필요시에는 잠수탐사를 실시한다.

(6)오염방지대책

준설공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오염방지대책의 검사가 필요하다.

준설구역이 어장이나 양식시설에 가까울 경우 준설작업중의 오염확산으로 인한 영향이 문제가 되는 예가 많다.

사전에 어장으로서의 이용실태, 조석류, 준설토질 등을 조사하여 오염발생량이 적은 공법, 오염확산이 적은 시공방법 및 오염방지막을 친 경우의 효과 등을 검토하고 오염방지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 생활정보 ♣

휴가철 교통사고 처리요령

간단한 접촉사고는 사고신고서 작성, 휴가후 보험사 연락

1. 떠나기전 준비사항

(1)안전장구

안전표지판, Spar Tire, 전구, 휴즈, Fan Belt, 공구, 후레쉬(야간 차량사고시 사고현장 확인에 필요), 보조키

(2)자동차사고에 대비한 준비사항

책임보험 영수증 및 종합보험 영수증 → 보험료 유효기간 확인(특히 책임보험 영수증은 소홀히 할 수 있으나 필히 지참), 검사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SPRAY(짙은색), 특히 휴가기간중의 이동시엔 차안에 가족과 자녀등 승차인원이 많아 사고시엔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므로 안전운전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함.

2. 교통사고 처리절차

(1)사고 발생시 행동요령

① 사고장소에 즉시 멈춤과 동시에 사고현장을 보존하여야 하며, 주위사람의 협력을 구하여 다음사항을 조치 △손해상황 및 자동차 위치 표시(카메라가 있을 경우에는 촬영) △승객 또는 다른 목격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확보 △상대방 운전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운전면허번호, 차량등록번호등 확인

② 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인근병원에 후송조치하고 정상인 경우에도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사후에 예상치 않은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경찰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보상)

③ 특히 고속도로등 과속지역에서의 야간사고시엔 시야불량으로 사고현장에서의 제2추돌사고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비상 표지판 설치등 사고처리 및 예방을 위한 최소인원 외에는 모두 안전지대로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④ 교통사고는 대부분 서로의 과실로 발생되므로 일방적으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거나 면허증, 검사증 등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은 금물임.

⑤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시 임의로 상대방의 책임을 면제 또는 경감하여 주는 증서를 작성하거나 약속할 경우에는 보험 회사의 보상책임이 없는 손해부분을 운전자 자신이 부담하게 되는 수도 있으므로 주의. (가 피해자 과실비율은 보험회사에서 산정함)

(2)사고 발생시 신고요령

① 사고발생 즉시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화하거나 또는 직접 방문하여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는다.

△손해보험회사는 7, 8월 휴가기간 동안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해 사고 처리요원을 평상시 보다 2-3배 늘려 비상대기하고 전국의 주요 휴양지에서 「이동보상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출발전 가입보험회사의 "이동보상서비스" 현황을 확인해 두면 만일의 사고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야간인 경우에는 각 손해보험사의 24시간 보상서비스 이용

(3)간단한 차량접촉 사고시

① 사고현장에서 불필요하게 운전자끼리 다투지 말고 사고내용을 서로 확인, 「사고발생신고서」를 작성하여 휴가가 끝난후 보험회사에 연락, 보험처리하는 것도 바람직함. (자동차사고 발생신고서는 각 보험회사의 지점이나 영업소에 양식이 비치되어 있으므로 출발시 신고서를 준비해 가면 만일의 사고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②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회사와 연락이 어려워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비용을 우선 지불했을 경우에는 피해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휴가가 끝난후 가입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심사후 지급함.

③ 차량견인시 유의사항

△접촉사고시 무조건 차량견인에 응하지 말것(차량운행이 불가능한 경우만 견인) △부득이 견인시에는 견인장소, 거리, 비용(건설교통부 신고요금 확인) 등을 정확히 정한후 견인→ 승용차인 경우 10㎞ 견인시 ₩47,300, 구난비용(30분 정도 구난 시) ₩16,000, 단, 사고장소나 기후에 따라 20%정도 할증 가능 △차량이 어디로 견인되었는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견인차량 회사명, 차량번호, 연락처 등을 알아둘 것 △견인비용에 대한 보험보상은 사고지역 인근 정비공장까지의 견인비용을 인정

〈피해자간의 사고내용 작성요령〉

① 가해차량 관련내용 : 차량번호, 운전자 성명, 전화번호, 면허증 번호, 보험가입회사, 보험증권 번호

② 사고개요 : 일시, 장소, 피해자 성명, 사고발생에 대한 가피해자 의견(상호서명), 목격자 전화번호, 성명, 사고내용 및 현장약도

※가 피해자가 다툼할 필요없이 쌍방의 보험회사에 사고처리를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

3. 자동차보험 긴급출동 서비스 및 24시간 보상서비스

자동차보험 가입자(현대해상은 책임보험 가입자도 해당)가 자동차 운행중 고장 또는 사고 등으로 운행할 수 없을 때 손해 보험회사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

〈 긴급출동 서비스〉

① 무료 견인서비스 : 자동차 운행중 고장 및 사고로 인해 운행불가시 가까운 정비업체까지 무료견인

② 무료 비상급유서비스 : 도로주행중 연료소진시 3리터까지 긴급 급유 (단, 경유차량 제외)

③ 무료 배터리 충전서비스 : 배터리 방전으로 시동이 불가능할 경우 출동하여 운행 가능토록 조치

④ 무료 타이어 펑크 교체 : 타이어 펑크로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운행토록 조치 (단, 출동업체의 예비타이어를 사용할 때는 다음날 반납하여야 함)

⑤ 무료 잠금장치 해제 : 열쇠를 두고 문을 잠그거나 분실할 경우 잠금장치 해제 조치

⑥ 기타 운행 불가시 : 차량고장 등 기타의 사유로 운행 불가시 출동하여 응급조치 (단, 규정외 수리비는 고객부담) ⑦자동차보험 긴급출동 서비스는 각 손해보험회사별로 서비스 내용이나 서비스 지역이 차이가 있음.

♣ 생활정보 ♣